

주된 일자리 이탈과 빈곤*

남재량**

본고는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가구 소득분배 상태 및 빈곤 동학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할 경우, 이들의 취업률은 급격히 하락한다. 다시 취업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되고 임금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임금하락은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된다. 이에 따라 이탈자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는 악화되고 빈곤율이 상승한다. 주된 일자리 이탈을 늦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 연공성 완화를 통한 임금과 생산성 간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 및 국가 차원의 노력과 '준비된 이탈'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하겠다.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는 중고령층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조기퇴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가 급격히 확산되는 등의 현상이 이러한 변화들의 대표적인 예이다. 본고는 이들 가운데 조기퇴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된 일자리 이탈에 초점을 맞추고 이탈자들의 이탈 전후 노동시장 상태를 추적 관찰하여 그 특징들을 밝히는 한편, 이로부터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특히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이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임금의 강한 연공성, 즉 임금 경직성이다. 한국의 임금 연공성은 OECD 국가들을 비롯하여 비교 가능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이 글은 남재량·김동배(2020),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중 제3장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nam@kli.re.kr).

한국의 연공임금제는 이연임금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짧은 기간에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한 한국경제에서 이연임금계약은 성실근로와 장기근속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맞이하게 된 저성장 고령사회에서 강한 연공 임금체계는 더 이상 적합한 임금계약 형태로 보기 어렵다(남재량, 2019a).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축되어 굳어버린 임금체계를 개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임금체계 개혁을 위한 이제까지의 여러 시도들이 사실상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강한 연공 임금체계하에서 근로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이다. 어떤 이유로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되는 것은 근로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은 이후 근로빈곤과 가구빈곤 그리고 노인빈곤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유례를 찾기 힘든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러한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하에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탈을 전후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상태와 근로소득 등의 변화와 관련된 특징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와 빈곤에 대한 동학(dynamics)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사점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주된 일자리 이탈 및 이탈 전후의 주요 특징

최근의 중고령층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주된 일자리 이탈과 관련된 특징들을 찾거나 분석한 연구들이 많지 않다. 다만 남재량(2020)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2014년 50~69세 연령층에서 주된 일자리 이탈자들의 이탈 전후 특징들을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고 있다.¹⁾ 본고는 우선 선행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간략히 요약·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1) KLIPS는 제18차(2015년) 조사의 '장년' 부가조사에서 "현재 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부가조사 자료를 당해연도 경향조사 및 인접한 KLIPS 조사자료들과 결합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것은 남재량(2020)을 참조.

1. 경제활동의 동태적 변화

가. 경제활동상태 관련 변수들의 급변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이탈자들은 이탈 전년도에 90% 이상 취업하고 있었으나, 이탈 다음 해에 이러한 취업자 비율이 20% 아래로 하락하는데, 이후 다시 상승하여 3년이 지나면 40% 수준에 달한다.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러한 취업자 비율의 변화와 정확히 반대 모습을 보인다. 실업자 비율도 10% 수준까지 급등하였다가 이후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50~69세 연령층 전체에서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 그리고 실업자 비율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²⁾

비경활 비율의 급등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는 반면, 실업자 비율의 증가는 구직자 비율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상당수는 더 이상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반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이탈자도 상당 정도 존재한다.

나. 종사상 지위의 변화

이제 주된 일자리 이탈자들 가운데 이탈 이후에도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종사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자. 종사상의 지위는 주된 일자리 이탈 1년 후 임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2년, 3년이 경과할수록 더욱 증가한다. 반면 상용직 비율은 이탈 2년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3년이 지나면 한꺼번에 15%p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용주/자영업자 비율은 이탈 1년 후 다소 증가하였다가 2년 후 10%p 정도 하락한다. 이러한 모습은 50~69세 연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사상 지위의 안정적인 분포와 크게 구분된다. 정리하면, 취업의 질이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1~3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

다. 근로형태의 변화

근로의 형태로 살펴본 고용의 질도 주된 일자리 이탈 후 1~3년 동안 급격히 악화된다. 이 기간 동안 비정규직 비율은 40% 남짓하던 수준에서 70%를 상회할 정도로 급증한다. 이는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한시근로와 시간제 근로 그리고 비전형 근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탈 이후부터 기간제와 용역근로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들의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남재량(2019b)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특징들이 발견된다.

비중은 이탈 후 3년 만에 각각 10%p 이상 증가한다. 특히 기간제의 비중은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뿐만 아니라 이탈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2. 근로소득의 변화

가. 임금의 변화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의 변화가 주된 일자리 이탈을 전후하여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특징적이다. 두 변수의 시계열은 그 움직임이 매우 흡사한데,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이들 두 임금은 급격히 하락하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였다가 이탈 4년 후에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 최저임금 미만율의 급격한 상승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로 인해 이들 가운데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따라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역시 크게 감소한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 이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이탈 1년 전에 10% 남짓한 정도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이탈 3년 후가 되면 무려 30%를 상회한다. 근로조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이다.

3. 주된 일자리 이탈 사유

기존 연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이탈 사유 가운데 45.5%가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를 직장의 파산, 일거리가 없어서,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과 같은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39.0%에 이른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우들을 추가한다면, 이처럼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요인들에 의한 주된 일자리 이탈은 전체의 45.5%를 차지한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퇴직 사유를 보면,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의 경우가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퇴직 사유로 건강과 고령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남재량(2019b)에 따르면, 양자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2018년에 20%에 육박하는 반면, 나이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

결국 건강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정책적으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즉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건강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을 알려준다.

Ⅲ.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및 빈곤 동학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와 그 변화를 앞에서 살펴본 남재량(2020)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KLIPS를 사용하여 2014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50~69세 연령층에 대해 분석하여 보자.

먼저 가구원 수에 대해 살펴보자.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에서 가구주의 주된 일자리 이탈이라는 충격은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 비해 클 것이므로, 가구원 수는 중요한 정보이다. <표 1>은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는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없

<표 1> 주된 일자리 이탈 가구원 유무 가구별 가구원 수 비율

(단위: %)

	가구원 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탈 가구	1명	4.6	5.6	5.4	5.7	5.4	5.6	6.1	7.6	7.8
	2명	21.4	19.7	23.6	22.4	22.6	26.8	29.0	29.1	36.4
	3명	24.1	24.1	24.0	25.9	25.8	27.7	31.7	32.4	32.1
	4명	38.6	40.6	38.7	38.1	37.6	35.0	28.9	26.3	19.1
	5명	10.6	9.4	7.7	7.4	7.6	4.5	3.8	4.2	4.0
	6명 이상	0.6	0.6	0.6	0.6	1.0	0.5	0.5	0.5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이탈 가구	1명	19.3	20.8	21.6	21.4	21.8	22.3	22.8	23.5	24.1
	2명	19.8	20.2	20.1	20.5	20.6	20.8	21.4	21.2	21.6
	3명	20.7	19.8	19.4	19.7	19.6	19.3	20.3	20.1	20.0
	4명	31.6	31.2	30.9	30.4	30.1	30.2	28.3	28.2	27.8
	5명	7.1	6.7	6.6	6.6	6.5	6.2	6.0	5.9	5.3
	6명 이상	1.6	1.4	1.4	1.4	1.3	1.2	1.1	1.1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는 가구의 가구원 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탈 가구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는 4.6~7.8%에 불과한데, 이는 비이탈 가구의 19.3~24.1%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 가구원 수가 2~3명인 경우는 이탈 가구의 경우에서 더 높고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018년에 이르면 이탈 가구 가운데 가구원 2인과 3인의 비율은 각각 36.4%와 32.1%로서 비이탈 가구의 21.6%와 20.0%에 대비된다. 반면 가구원 수가 4명인 경우의 비율은 이탈 가구에서 2011년에 40.6%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 26.3%, 2018년 19.1%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비이탈 가구에서도 가구원 수가 4명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 31.6%에서 2018년 27.8%로 하락하는 데에 그친다.

〈표 2〉는 소득의 10분위 비율을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총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2〉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탈 가구의 소득이 1분위와 2분위에 위치하는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즉 이탈 가구의 1분위와 2분위 비율은 2014년에 각각 4.4%와 6.3%이어서 이들을 더한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비율이 10.7%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 이 비율이 20.2%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에 25.8%로 더욱 상승하고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할 경우, 4가구 가운데 1가구 정도는 2년 정도 지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소득 하위 20% 비율은 2017년 23.7%와 2018년 25.3%로 변동하고 있다.

〈표 2〉 주된 일자리 이탈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경상소득 기준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위	2.7	4.5	2.4	7.2	4.4	7.2	11.4	11.4	8.1
2분위	4.4	5.1	8.1	6.1	6.3	13.0	14.4	12.3	17.2
3분위	8.2	5.0	8.3	6.1	10.2	13.2	14.0	4.7	6.3
4분위	13.7	11.1	8.4	16.3	6.5	7.0	12.1	9.9	13.9
5분위	5.6	13.0	14.0	8.9	8.0	9.7	7.4	14.1	7.9
6분위	12.5	7.5	9.0	5.0	8.4	6.1	9.7	12.7	14.4
7분위	16.4	17.4	9.3	12.8	13.7	6.5	8.5	8.5	7.5
8분위	9.2	12.7	14.6	9.9	12.8	13.6	5.5	9.3	8.5
9분위	17.0	11.4	9.3	16.4	15.6	15.2	9.9	11.9	7.3
10분위	10.3	12.3	16.7	11.4	14.1	8.4	7.1	5.1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3〉 주된 일자리 이탈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 총소득 기준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위	2.5	3.7	2.5	6.5	4.5	8.5	13.5	12.3	9.9
2분위	4.3	3.9	6.1	4.6	5.8	9.3	12.7	10.9	13.3
3분위	7.9	5.9	9.5	7.9	11.2	15.5	14.5	4.2	7.7
4분위	14.8	11.5	10.8	16.4	6.1	7.4	11.7	10.7	12.8
5분위	4.7	11.4	12.1	7.5	8.7	6.1	8.3	14.3	11.7
6분위	12.5	9.2	9.0	6.2	11.9	8.4	8.2	13.0	10.2
7분위	13.6	17.4	9.9	12.8	10.5	5.2	9.1	7.6	11.4
8분위	11.6	12.2	13.8	11.3	10.3	11.0	5.9	11.5	5.6
9분위	16.8	13.8	8.5	16.1	14.2	12.0	8.9	10.4	8.7
10분위	11.3	11.0	17.6	10.7	16.9	16.6	7.3	5.1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탈 가구가 빈곤하게 되는 정도를 살펴보자. 빈곤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빈곤선은 2014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되어 빈곤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 중위소득의 50%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고시하는 소득이다. 후자의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선을 정의할 경우, 전자의 경우에 비해 빈곤선이 높아져 빈곤율 역시 커지게 된다. 따라서 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의 빈곤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표 4〉는 2014년까지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그리고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선을 정의하고 빈곤율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표 4〉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표 4〉에서 보듯이 정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2013년에만 하더라도 4.7%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2013년 빈곤율인 10.6%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 이탈이 발생하는 2014년에 이탈 가구의 빈곤율은 전년도인 4.7%에 비해 8.8%포인트나 상승한 13.5%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이탈 가구 빈곤율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18.5%와 20.4%로 높아진다.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이로부터 2년가량 경과하는 경우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빈곤가구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표 4〉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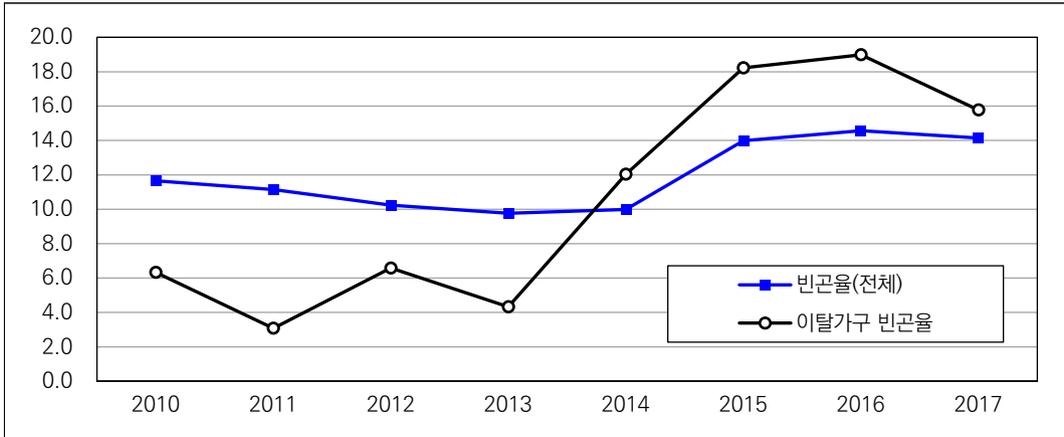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상소득 기준	전체	12.5	12.0	11.2	10.6	11.3	15.5	16.0	15.2
	이탈가구	7.9	3.4	8.2	4.7	13.5	18.5	20.4	16.8
총소득 기준	전체	11.7	11.1	10.2	9.8	10.0	14.0	14.6	14.1
	이탈가구	6.3	3.1	6.6	4.3	12.0	18.2	19.0	15.8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1] 빈곤율: 총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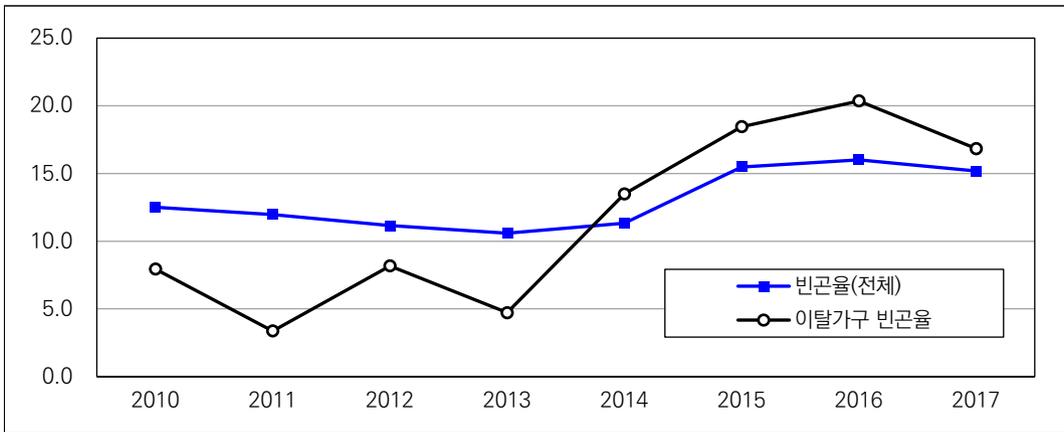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빈곤율: 경상소득 기준

(단위: %)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IV. 요약 및 결론

본고는 주된 일자리 이탈과 이를 전후한 소득 분배 및 빈곤의 동태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 밝혀져 있는 주요 사실들(facts)을 간추리고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KLIPS 원자료를 사용하여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가구 소득분배 상태 및 빈곤 동학(dynamics)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이탈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중요한 특징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이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자.

주된 일자리 이탈과 이의 전후를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취업자의 비율이 이탈 직전 연도의 90% 이상에서 이탈 다음 해 2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취업자 비율의 변화와 거의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러한 가운데 실업자 비율도 10%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하락하고 있어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탈자도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더 이상 일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일하고자 구직활동을 하는 이탈자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로 건강과 고령을 든 비율이 40%에 육박하였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건강과 나이 때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가 각각 20%와 2.3%여서 건강과 나이 가운데 건강이 90%를 차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2014년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건강 때문에 이탈한 경우가 무려 36%에 이른다는 추정 이 가능해진다. 이는 개인과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된 일자리 이탈 사유 가운데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45.5%에 이르렀다.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 가운데 경기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도 존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직적 임금체제로 인한 생산성과의 괴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중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당장 제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임금유연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에도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은 종사상의 지위나 근로의 형태로 파악할 때 모두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이들이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에도 취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근로소득의 확보일 것이다. 그러나 고용의 질 악화는 근로조건이 저하로 곧장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는 가급적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 근로소득의 변화도 급격하였다.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이탈 이후 한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로 인해 이탈 근로자들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상승한다. 이탈 이전 10% 남짓하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이탈 3년 후 30%를 넘어서고 있다. 미만율의 이러한 변화는 취업자 비율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가구의 소득수준을 저하시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주된 일자리 이탈 후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여러 부정적인 변화들은 이탈자가 존재하는 가구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탈 직전 이들 가구의 소득 하위 20% 이하 비율은 10.7%였으나, 이탈과 더불어 이 비율은 20.2%로 높아졌고, 그 다음 해에 25.8%로 높아졌다. 이탈 가구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이탈 후 2년가량 경과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탈 가구의 이러한 소득분배 상태 악화는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탈 가구의 빈곤율은 이탈 이전 경제전체 빈곤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탈과 더불어 경제전체 빈곤율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탈 후 2년가량 경과하면 이탈 가구의 빈곤율은 20%를 넘고 있어 주된 일자리 이탈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빈곤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이 원하는 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탈 이후 근로조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가구소득의 감소와 소득분배 상태의 악화를 거쳐 빈곤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을 본 연구는 확인하였다. 이들이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근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주된 일자리에서 가급적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임금유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 이탈 사유 가운데 주로 노동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45.5%를 차지하였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직적 임금체제로 인한 생산성과의 괴리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당장 중고령층 근로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면, 임금의 유연화를 통해 이들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주된 일자리 이탈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셋째,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36%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하겠다.

넷째, 주된 일자리에 무한정 종사하기는 어려우므로 주된 일자리 이탈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된 일자리 이탈의 중요한 신호들을 미리 인식하고 불가피하게 이탈할 수

밖에 없을 경우 이후를 대비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준비된 이탈과 그렇지 않은 이탈은 많은 측면에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KLI**

[참고문헌]

남재량(2019a), 『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19b),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특성 분석 및 고용 정책」, 이윤경 외,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2020),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근로소득 격차 연구」, 김태완 외,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재량·김동배(2020), 『중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성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